

희토류, 중국 횡포에서 미국 “탈출”

USGS, 서부 광산에서 샘플 분석... 수입에서 자급화 시도 서둘러

미국이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 생산을 위해 서부 광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희토류는 원자번호 57-71번의 란탄(Lanthanum)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으로 총 17개 원소가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은 미국이 직접 희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중국산 수입에서 벗어나 자급하는 형태로 전환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Diaoyudao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중단을 거론했을만큼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이 정치적 도구로 희토류를 이용한 사례가 빈번해 위기를 느낀 미국이 적극적으로 희토류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질조사국은 미국 서부 광산에서 수집한 2500여종의 돌과 광물샘플을 레이저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유일한 희토류 개발기업인 몰리코프(Molycorp)도 희토류 2만톤이 매장된 폐광의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4>